능력이 작아서 더욱 빛나는 교회

(계3:7~13)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능력이 작아서 더욱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에 읽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전 2세기경에 이 도시가 세워졌어요.
아탈루스 2세에 의해 건립될 때의 이름이 필라델푸스, 이게 빌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푸스'라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푸스' 형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이름으로 이 빌라델비아가 건설이 됩니다.
근데 17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로마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도시 이름이 바뀝니다.

그 티베리우스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네오가이사랴로 이름을 바꾸고, 그 후에 다시 황제가 베스파시안으로 바뀔 때 또다시 이름이 필라비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황제 숭배가 정착이 되면서 네오코로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새 이름이 세 번 나오잖아요?
이름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도, 이 도시의 이러한 역사와 연관이 돼 있는데, 지진의 경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 천장이 무너져 내리니까, 집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역사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늘 지진의 위협 속에 위기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다시는 내가 지금 발 딛고 있고 누워 있고 자고 있고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왜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그 메시지 속에서 당신을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열린 문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핀잔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겠다,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암호 같아요, 그렇죠? 암호 같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하다는 말씀 진실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깊은 의도가 들어 있는 말씀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씀이, 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이 말씀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럼 자!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하심 주님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되는 내용을 우리가 알면 오늘 이 메시지의 윤곽이 분명하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과 진실함과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가?
그럼 문이 뭡니까? 문이.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거실에서 침실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려 해도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뭡니까?
구별된 두 공간이 있을 때, 구별됐다는 건 서로 다른 용도의 공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특성의 공간인데, 이 다른 특성의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문이라는 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취업의 문이 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 관문을 통과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
이런 게 다 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공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위해서만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구별된 상황을 통과할 때도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싫어요.
그러면 더 나은 상황을 꿈꾸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나은 상황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상황과 구별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인데,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룩하심이 뭡니까?
주님이 거룩하세요, 근데 거룩하다는 게 뭐지요? 구별 된다는 거예요, 구별 된다는 거.
구별 되는데, 안방과 거실이 구별이 되고 가난한 상태와 부자의 상태도 구별이 되고, 취직을 한 상태와 취직을 하지 않은 상태도 구별이 되는데, 취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취직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다고 거룩하다는 말을 적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가 부자가 돼도 분명이 구별된 두 개의 상황이 통과가 된 건데, 상황 이동이 일어났

는데, 문을 통과한 거지만 거룩하다고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분은 돼 있지만.
거룩한 게 뭡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문을 통과하는 이유는 전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상황을 향해 통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됐다 그랬잖아요?
구분된 두 상황을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문인데, 거룩은 구분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좋은 상황이 따로 구별될 수 없는 상황이 거룩입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상황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거룩에 도달하고 나면, 주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고 나면은, 더 이상 좋은 다른 구별된, 우리가 또 문을 통과해야 될 그런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진실하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문과 거룩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과는 구별되는, 더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하여 문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는데, 그 좋음의 궁극적인 상태인 거룩으로 들어오는 문을 너희 앞에 열어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 곳에 도착해서 좋음을 느끼면, 그것과 다른 더 좋음이 존재할 수 없는 최종적인 좋음의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쇠를 가지 주님께서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최종적인 좋음, 그 좋음을 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
구별된 상태, 거룩은 구별된 거요, 최종적으로 구별된, 최종적으로 좋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진실하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취직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한 상태로 지금 취직을 못한 상태와 구분되는 취직의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취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서 취직 상태로 갔어요, 좁은 취직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취직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하여간 월급이 얼마든지 간에 취직만 하면 그 취직해서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든지 상관도 안하고, 무조건 감사만 하겠다, 무조건 기쁠 것

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을 딱 하고 났더니, 첫날부터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경쟁이고 지옥이에요.
기쁠 수가 없어요, 취직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긴장하고 성과를 올려야 되고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또 좀 세월이 지나니까 아랫사람이 오는데 아랫사람이 치받습니다, 더 탁월한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날마다 전쟁입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월급 갖다 주면 그거 갖고 하하 호호 하면서 가족들은 잘 지내게 그거 바라면서 참거나 견디는데 이게 기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기쁠 거라고 믿었어요, 돈이 없는 상황과 구별되는 돈이 있는 상황으로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좋을 거를 기대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돈이 있는 상태를 살다보니까, 이것도 끝이 없어요.
더 돈이 있어야 되겠고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더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좋을 거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 관문을 통과하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도달해 보면 아무것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진실하시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께 도달하고 나면은, 주님께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문을 통과하고 나면, 거룩하신 그분들께 도달하고 나면, 아! 이게 웬일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자나 깨나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땅에서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출세하든지 못하든지,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누가 나를 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좋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좋고 이제 그 좋다는 거를 믿어도 완전히 괜찮을 수 있는, 진실하신 그 주님께서 열쇠를 열어서 당신과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겠다는 겁니다.
좋음의 극치로 기쁨의 극치로 만족의 극치의 상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했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이라고 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그 다음 칭찬의 내용이에요.

뭘 했냐 하면, 너무나 싱거워요.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쁨과 좋음과 만족의 극치인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문을 열어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정도였으면, 뭔가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1세기 말경인데 이때는 우리처럼 신구약성경 66권을 손에 쥐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약성경에 '말씀'이라고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언제 시작하지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의 생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곧,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서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서 예언되던 분이 오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걸 증명하셨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놔두실 수가 없으셔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늘로 끌어올리셨다.
이게 바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이게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와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 배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에요?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존재를 가리키는 기호요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실제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러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되는 돈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는 하늘에 계시는데, 내 마음은 땅을 향해서 땅에서 사업을 잘하고 싶고 땅에서 자식을 잘 기르고 싶고,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땅에서 부흥하고 싶습니다, 땅에서 좋은 예배당 짓고 싶습니다.
이게 이름을 배반한 겁니다.
마음의 등을 주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그분이 아들인 걸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가신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인정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면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 좋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로마제국의 박해가 임하고 또 오늘 읽지 않은 구절부터 유대인들이 또 나와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힘들지마는, 그러나 이것들이 힘든 것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진짜 좋은 만족함 기쁜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 도달하는 것이 기쁨에 도달하는 것이고, 진짜 좋음에 궁극적인 좋음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땅의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면서 이 땅의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희색이 만면하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마음을 궁극적인 좋음의 상태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탄압받아 어렵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당하는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지마는,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어려움이 주어지면, 이걸 해결해야 내가 기쁠 텐데, 라고 달려든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고, 하늘을 향해서 궁극적인 좋음을 기대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하고 주님을 뽕 가게 하신 기쁨의 이유가 됐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인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걸 이해하시냐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로 하층민들이나 지위가 낮고 뭐 경제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자들이 왔기 때문에 재능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약하고 재정적으로 약하고 재능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더 불리합니까?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 더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더 불리한 조건인데도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아니지요.

성경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뒤나민'이라고 나오는데, '뒤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뒤나민'이라고 하는 '뒤나미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복음서부터 서신 뭐 사도행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 하면, 권능이라고 번역 됩니다, 권능.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앉은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때 그 권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도처에 있는 거예요, 도처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베새다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권능이 바로 '뒤나미스'를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본문에 번역하고 있는 '뒤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적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에베소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적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능력은 이들이 게을러서 적게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에베소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도행전 19장11절 같은 경우에 바울을 통해 기이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 기이한 권능을 행하셨다 그래요.
이때 이 능력과 권능도 또 오늘 바로 '뒤나미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교회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전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런 많~은 능력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떤 능력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능력을 하사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일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능력의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전후를 보면 알아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다 성령이 오셔 가지고 능력을 받잖아요?
문을 박차고 나가 가지고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능력이 주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서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죽 확실하겠습니까? 그걸 또 보는 사람도 그 주변에 같이 있는 교회 교인들도 확실해 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 해주는 게 능력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어떤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좋은 분으로 믿고, 마음을 내가 마음이 좋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늘만 향했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아무런 그런 기적도 없고 그런데도, 기적도 표적도 기사도 센세이셔널 한 무슨 능력이 나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확실하게 마음을 향하고 믿고 그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뽕 가지 않게 생기셨습니까, 지금?
아! 이거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우린 늘 왜 나한테는 능력이 안 주어지나, 왜 나한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나? 왜 그러겠어요, 왜?
주님께서 도마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능력을 내가 줌으로써 확실해졌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좋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섰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주어져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
능력을 내가 주지 않았는데도 하늘나라가 평안의 유일한 근거라고 믿고 하늘나라만 향해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베드로나 사도바울보다 더 복이 있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말일까요?
능력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확실하게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빌라델비아 교인 때문에 기뻐하던 하나님과 주님과 천사들이, 다시 한 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서 뽕~ 가시도록, 마음을 그쪽을 향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좋음은 하늘에만 있다, 나의 좋음은 하늘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굳게 믿으시고, 복 중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서 일어난 신앙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